해외출장 보고서

I. 출장 개요

□ 출장 목적

○ 출장 건명: 단감 수출전문단지 조성 및 조직화를 위한 기술 지원
○ 출장 목적: 중국산 감의 생산, 유통, 수출 과정 조사와 수출시장 경쟁력 조사
○ 출장 지역: 중국 광서성, 홍콩
○ 출장 기간: 2009년 10월 19일 ~ 10월 24일(4박6일)
○ 출장자 인적사항

부서명	직급	성명
농식품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김 경 필

□ 일정 및 면담자

○ 출장기간: 4박 6일 (인천 → 계림〔4일〕 → 홍콩〔2일〕 → 인천)

일 시	내 용	비 고
10.19(월) 19:35~22:30	이동(인천→계림)	
10.20(화) 09:00~12:00	이동(계림→恭城)	
14:00~18:00	감 수출업체 방문 협의	
10.21(수) 10:00~12:00	감 수출 및 가공업체 방문 수출업체 면담 및 가공공장 조사	
14:00~18:00	감 농장, 선과장 조사	
10.22(목) 10:00~12:00	계림 과실류 도매시장 및 재래시장 조사	
17:20~19:20	이동(계림→홍콩)	
10.23(금) 10:00~12:00	홍콩 수입업체 면담	
14:00~18:00	홍콩 청과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조사	
10.24(토) 00:45~05:20	이동(홍콩→서울)	

Ⅱ. 조사내용 및 시사점

1. 중국 국가개요[1)]

가. 개요

중국은 아시아 동부에 있는 나라로, BC 221년 진(秦)나라의 시황제(始皇帝)가 처음으로 통일을 이루었다. 중국 최후의 통일왕조인 청(淸)나라에 이어 국민당의 국민정부가 세워졌고, 1949년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다.

중국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이다. 세계 최대의 인구와 광대한 국토를 가진 나라로, 국토는 남북 5,500㎞, 동서로 우수리강(江)과 헤이룽강의 합류점에서부터 파미르 고원까지 5,200㎞에 달한다. 북동쪽으로 한국·러시아연방, 서쪽으로는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남서쪽으로는 인도·파키스탄·네팔·부탄, 남쪽으로는 미얀마·베트남·라오스, 북쪽으로는 몽골·러시아연방과 각각 국경을 이룬다.

행정구역은 간쑤·광둥·구이저우·랴오닝·산둥·산시[山西]·산시[陝西]·쓰촨·안후이·윈난·장시·장쑤·저장·지린·칭하이·푸젠·하이난·허난·허베이·헤이룽장·후난·후베이 등 22개 성(省)과 광시장족·네이멍구·닝샤후이족·시짱(티베트)·신장웨이우얼 등 5개 자치구(自治區), 베이징·상하이·충칭·톈진 등 4개 직할시(直轄市), 마카오·홍콩 등 2개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로 이루어져 있다

1)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 공식국명: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
- 수도: 베이징[北京]
- 면적: 9,596,961㎢
- 위치: 아시아 동부
- 경위도: 동경 105° 00′, 북위 35° 00′
- 인구: 1,338,612,968명(2009.7추정)
- 공용어: 중국어
- 기후: 습윤기후, 건조기후, 대륙성기후
- 화폐: 위안(Y)
- 1인당 GDP: $5,963 (2008년 기준)
- 종교: 도교, 불교, 그리스도교(3%), 이슬람교(1%～2%)
- 행정구역: 22개 성(省)과 5개 자치구(自治區), 4개 직할시(直轄市), 2개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

나. 경제동향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 1분기 6.1%에서 2분기 7.9%로 수직 상승세를 보였으며, 상반기 실적은 7.1%(GDP 총액: 13조 9862억 위안)를 기록하였으며, '09년 2분기 수직상승하면서 연간 8% 목표달성에 청신호가 켜져 경제 회복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감소하였다.

2009년 상반기 산업별로는 3차 산업의 성장이 가장 빨라 전년 동기대비 8.3% 증가하였고, 2차 산업은 전년 동기대비 6.6% 증가하였다. 2009년 상반기 소비자물가(CPI)는 1.1% 하락했고 그 중 도시와 농촌의 하락 폭이 각각 1.3%, 0.6%에 달한다.

2008년 GDP 총액은 30조 67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는 크게 떨어진 추세이다. 중국의 소비 시장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연간 사회 소비재 소매 판매 총액은 2008년에 10조 8,48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1.6% 증가하였다. 2008년 연간 소비 물가 상승률은 5.9%로 전년 대비 1.1%p 늘었다.

표 . 중국 주요 경제지표

	2005	2006	2007	2008(e)	2009(f)
GDP(억달러)	23,039	27,750	32,407	43,262	46,070
1인당 GDP(달러)	1,760	2,110	2,620	3,160	3,450
경제성장률(%)	10.4	11.6	13.0	9.0	6.5
소비자 물가상승률(%)	1.8	1.5	4.8	5.9	-0.5
환율(달러당.연중)	8.1943	7.9734	7.6075	6.9487	6.8200
외환보유고(억달러)	8,189	10,663	15,282	19,549	20,569

주: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09년 상반기 무역흑자는 1,08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지만 6월 이후 수출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며, 수입 감소세는 -15.1%에 그쳐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009년 1~7월 수출은 글로벌 경제 침체 여파로 선박을 제외한 10대 수출품의 수출량은 모두 감소하였다. 중국 조선 산업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추세이며 선박의 1~7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4% 증가한 151 억 달러로 집계되었다.2009년 1~7월 수입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모두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으며 과실을 제외한 10대 수입품의 감소세가 둔화되었다.

2008년 중국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17.6% 증가, 수출은 전년대비 17.3%, 수입은 18.3%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13.36%의 증가세로 무역수지 흑자

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중국의 10대 수출품은 전기전자, 보일러 및 기계류, 의류(편물), 의류(편물제외), 광학기기, 가구 및 조명기기, 일반차량, 철강제품, 철강, 유기화학물 등이며, 특히 중국의 산업경쟁력 향상에 따라 수출상품이 고도화되면서 전기전자 및 기계류 수출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중국의 10대 수입품은 전기전자, 광물성 연료, 보일러 및 기계류, 광 및 슬랙회, 광학기기, 플라스틱, 유기화학물, 동 및 그 제품, 일반차량, 철강 등으로 수출상품 구조와 유사성이 강한 편이며, 이는 중국의 대외무역 구조가 외국산 원·부자재를 도입하여 가공한 후에 재수출하는 가공 무역에 의존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홍콩, 일본, 독일 등이며 '08년 실적 기준으로 이 5개 국가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실적의 48.5%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입 대상국은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미국 등이며 이들 5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전체 수입실적의 47.7%를 차지하고 있다.

표 . 중국 수출입 현황

단위: US$백만,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7월
수출 (증가율)		438,473 (34.6)	593,647 (35.4)	762,327 (28.4)	969,324 (27.2)	1,218,155 (25.7)	1,428,869 (17.3)	626,425 (-22.0)
수입 (증가율)	295,303 (21.2)	413,096 (39.9)	560,811 (35.8)	660,222 (17.7)	791,794 (19.9)	956,261 (20.8)	1,131,469 (18.3)	517,742 (-23.7)
무역수지	30,339	25,377	32,836	102,105	177,530	261,894	297,401	108,683 (-14.6)

자료: 중국세관통계

다. 농업·농촌경제동향[2)]

2009년 1~9월 중국의 농업GDP는 전년 동기대비 4.5% 증가하였으며, 2009년 1/4분기를 저점으로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농업부문별로는 임업GDP 증가율이 5.8%로 가장 높았고, 재배업GDP 증가율이 3.7%로 가장 낮았다.

2) 중국농업동향 제2권 3호(2009 가을)

표 . 중국의 GDP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3월	1~6월	1~9월	1~12월
GDP 성장률	10.0	10.1	10.4	11.6	11.9	9.0	6.1	7.1	7.7	8.5
1차산업	2.5	6.3	5.2	5.0	3.7	5.5	3.5	3.8	4.0	4.1
- 농업 전체	-	-	5.7	5.4	3.9	-	3.8	4.2	4.5	-
· 재배업	-	-	4.1	5.4	4.0	-	2.2	3.3	3.7	-
· 임업	-	-	3.2	5.6	6.9	-	4.9	6.7	5.8	-
· 축산업	-	-	7.8	5.0	2.3	-	4.9	5.1	5.3	-
· 어업	-	-	6.5	6.0	4.8	-	3.2	4.1	4.6	-
2차산업	12.7	11.1	11.7	13.0	13.4	9.3	5.3	6.6	7.5	8.0
3차산업	9.5	10.1	10.5	12.1	12.6	9.5	7.4	8.3	8.8	8.8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중국의 지난 30년간 농업부문 GDP는 연평균 4.4% 증가하였으며 이는 연평균 인구증가율(1.1%)의 4배에 달한다. 1978년 3.05억 톤이었던 식량 생산량은 2008년 5.29억 톤으로 약 73% 증가하였으며, 면화는 216.7만 톤에서 740.2만 톤으로 약 3배 증가하였다. 또한 유지작물은 521.8만 톤에서 2,952.8만 톤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사탕수수는 0.211억 톤에서 1,242억 톤으로 약 6배 증가하였고 채소 재배면적은 333.1만ha에서 1,787.6만ha로 5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과일은 657만 톤에서 10,220만 톤으로 15.5배 증가하였다.

1980년 벼, 밀, 옥수수 등 식량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60%에 가까웠으나 2005년에는 약 50%까지 감소하였고, 5년 이후에는 40%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채소, 과일 등 경제작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축산업과 어업의 비중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재배업의 내부 생산구조가 개선되고 있다.

2007년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은 4,140위안으로 1978년에 비해 약 30배 증가하였으며, 이를 실질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6배 이상 증가하였다. 농촌 빈공층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국내 빈곤층 기준은 물론 세계은행 빈곤층 기준(1일 1달러 소비)을 적용하더라도 빠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감 생산 동향

세계 감 재배면적은 2008년 현재 76만 2,000ha로 최근 5년간 12.4% 늘어났으며 그 중 중국의 감 재배면적은 68만 3천ha로 세계 감 재배면적에서 89.6%를 차지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감 생산량은 353만 톤 수준으로 최근 5년간 25.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생산량도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최근 5년간 24.6% 증가하고 있다.

표 . 세계 감 수급 동향

단위: ha, 톤, %

		2004	2005	2006	2007	2008	증감률 '08/'04
세계	재배면적	678,408	697,817	713,944	740,664	762,517	12.4%
	생산량	2,896,997	3,261,981	3,335,565	3,383,165	3,627,575	25.2%
	수출량	17,063	1,447	22,329	17,908	-	10.6%
중국	재배면적	603,107	622,321	639,545	663,676	683,869	13.4%
	생산량	2,034,391	2,212,152	2,346,741	2,332,962	2,533,899	24.6%
	수출량	-	-	-	-	-	-

주: 수출량 증감률은 '07/'03 임.

자료: FAO

그림 . 세계 감 재배면적 및 생산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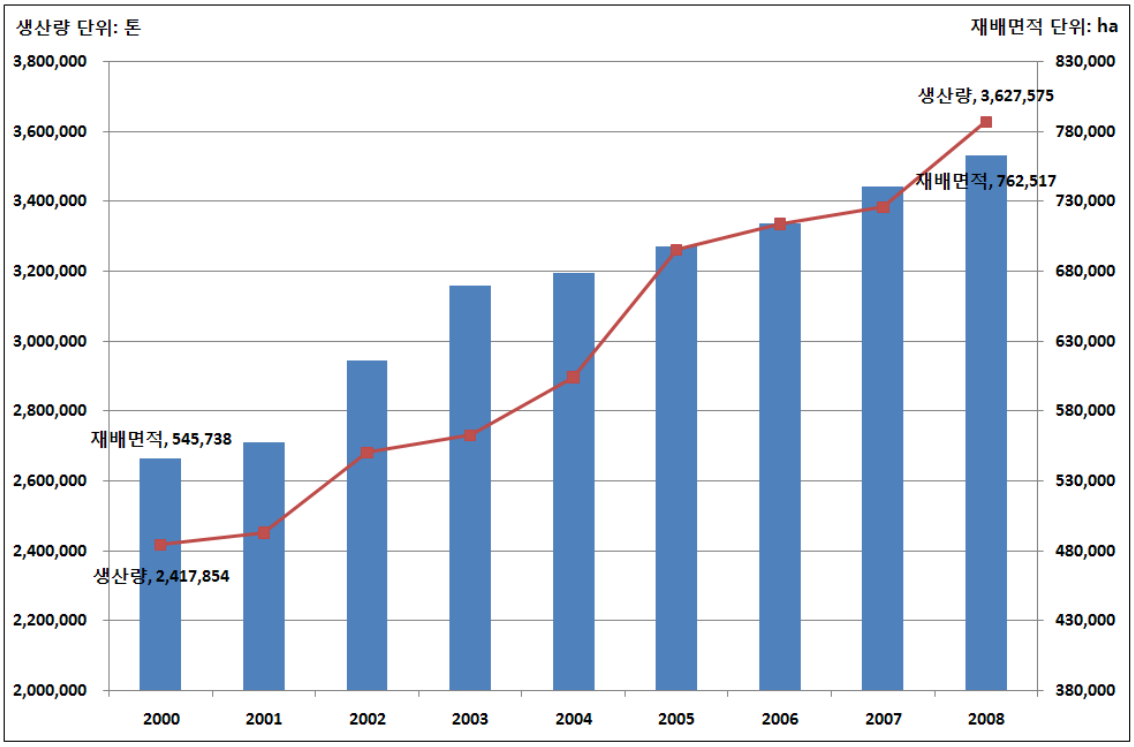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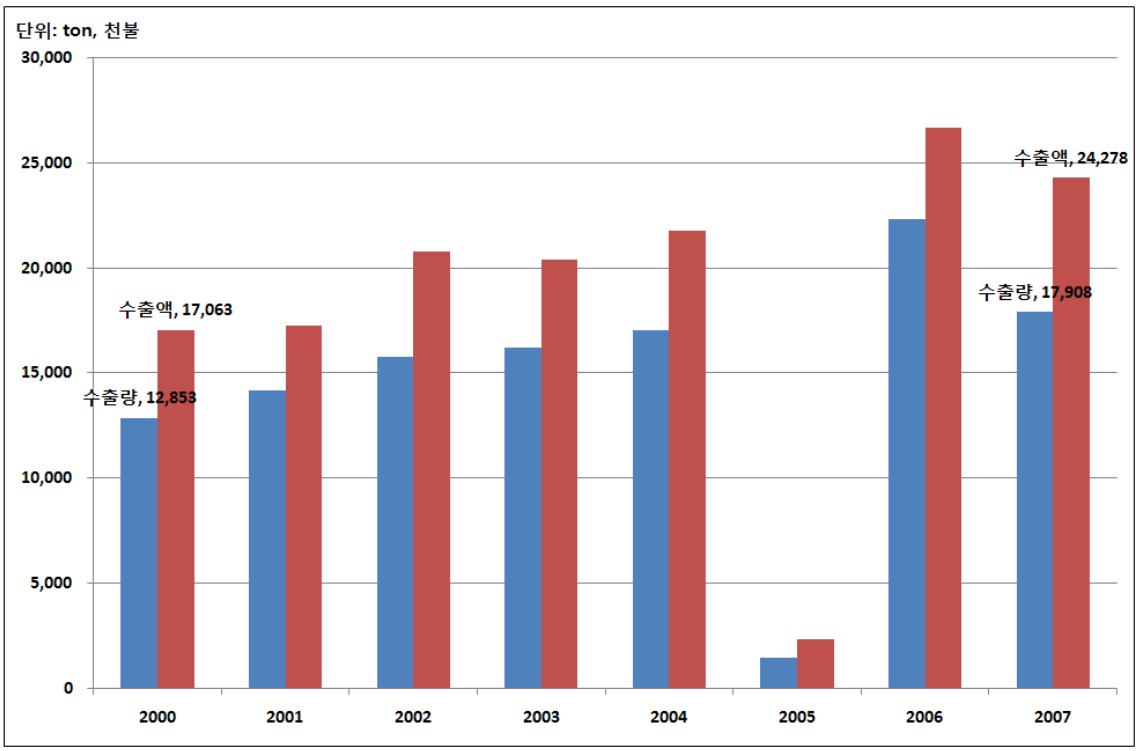


그림 . 세계 감 수출 동향



중국에서 단감, 떫은감을 포함한 감 전체 생산량은 2008년에 68만 4천톤으로 2004년 대비 13.4% 증가하였으며,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2004년 이후 8만여 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세계 감 생산량은 2008년에 76만 3천톤으로 중국 감 생산량은 세계 생산량의 89.7%를 차지하였으며 세계 감 생산량 증가율은 12.4%로서 중국 생산량 증가율과 비슷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 대비 호주와 브라질의 감 생산량은 다소 증가 했으나, 이탈리아나 일본, 뉴질랜드 생산량 증가율을 감소하였다.

국제교역 규모는 생산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아주 작은 편이며, FAO 통계에 따르면 이중 우리나라 단감의 수출량이 약 16%(2006년 기준)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 감 수출량 규모는 1만 7,000톤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타 과실에 비해 적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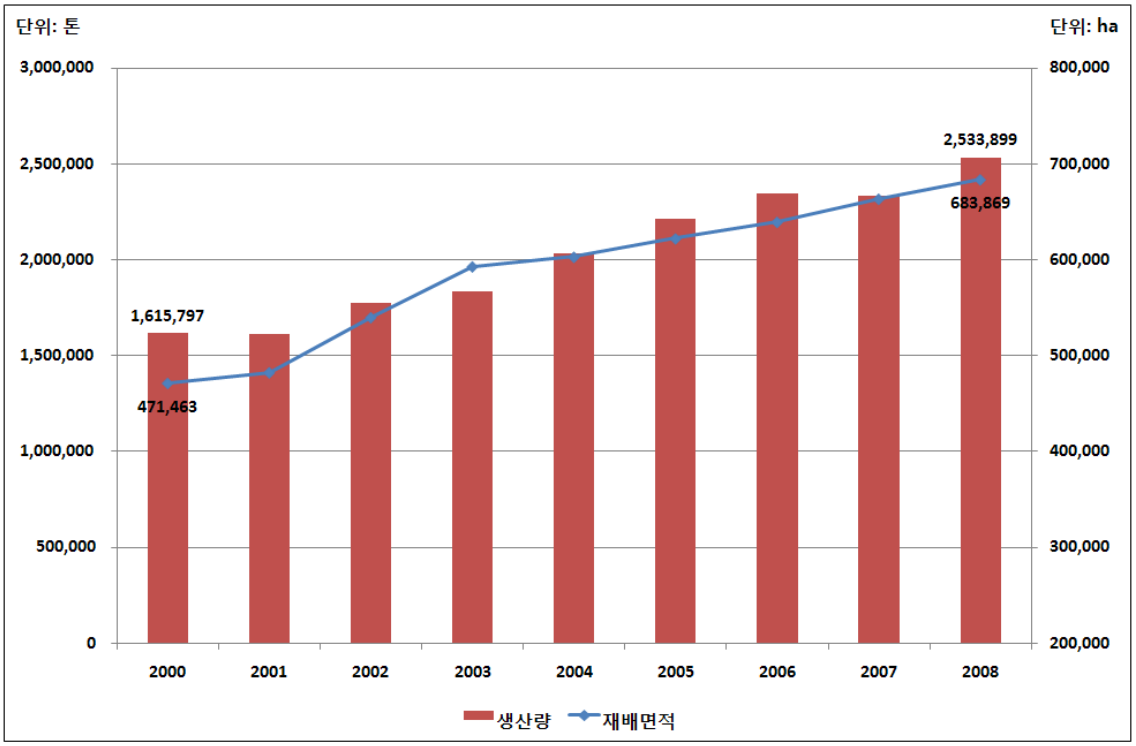
표 . 중국 감 생산 동향

단위: 톤, %

국가	2004	2005	2006	2007	2008	증감률 '08/'04	세계대비 비중
호주	75	75	80	82	82	9.3%	0.01%
브라질	8,112	8,309	8,534	8,065	8,650	6.6%	1.13%
중국	603,107	622,321	639,545	663,676	683,869	13.4%	89.69%
이스라엘	4,400	4,400	2,500	3,800	3,000	-31.8%	0.39%
이탈리아	2,820	2,720	2,837	2,700	2,700	-4.3%	0.35%
일본	23,800	23,700	23,500	23,200	23,200	-2.5%	3.04%
뉴질랜드	230	195	200	180	180	-21.7%	0.02%
세계	678,408	697,817	713,944	740,664	762,517	12.4%	100.00%

주: 세계대비 비중은 2008년 기준임.
자료: FAO

그림 . 중국 감 재배면적과 생산량 동향



5. 중국 감 산업동향[3)]

가. 조사지역 개요

중국 광서성 계림 지역은 800년의 감 재배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으로의 곶감 수출은 1998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계림시는 감과 귤 생산의 적

3) 중국 감 산업 동향 내용은 200.10.19~10.24일까지의 현지조사 결과를 주 내용으로 하여 작성함.

지 및 주산지이며 생산량의 30~40% 정도를 수출하고, 60~70%는 내수시장으로 출하, 소비하고 있다. 또한 태풍이 별로 없고 바나나 품목은 노지 재배되고 있으며, 은행이 많이 생산되어 통조림으로 수출하고 있다.

광서성 및 계림 지역은 지리적 위치의 기후 및 토지 여건으로 인해 단감 품종을 식재하더라도 기후, 토지 등에 적응을 못해 떫은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단감 생산이 어렵고 대부분 떫은감을 생산하는 상황이다.

나. 감 생산 실태

궁청현은 계림시에서 승용차로 약 3시간 거리에 있으며 아열대성 기후로 따뜻하고 구릉지대가 많아 4천년 전 송나라 때부터 감을 재배하였다. 궁청현 감 생산량은 연간 45만톤 정도로 중국 감 생산량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당 재배면적 규모는 과거 과수원을 1무(220평) 단위로 가족 수에 따라 배정하는 소규모 재배방식이었으나, 2006년부터 대규모 감 농장과 관광산업(숙박, 레저)을 접목하여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였다. 蓮花鎭蓮塘岭月柿示範基地는 총면적 12,000무[2,640천평], 중심지역 1,000무[220천평]이다.

농장 소유는 개별적이나 관리지침은 전체 관리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감 생산이 증가해도 중국내 과실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감 재배농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궁청현 감 재배품종은 주로 월시(月柿)와 소심시이며, 월시는 매우 달고 푸를 때 따고 익은 감은 주로 말랭이를 만들고 소심시는 소 심장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과수원에 수분수가 없어서 낙과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박피를 하여 씨 없는 감을 생산한다.

9월말에서 11월초에 주로 생산하고 탈삽감은 9월말부터 수확하기 시작하여 11월 10일까지 수확한다. 수확한 감은 탈삽 후 저온 저장하고 있으며, 11월 15일 전후 완전 성숙기에 수확하는 감의 당도가 가장 높다.

수확 방법은 개인 과수원별로 소량씩 개별적으로 수확한 후 유통업체, 가공공장에 공급하며, 시범단지는 수확기에 공동으로 수확하여 출하하고 있으며 중상품 30~40% 정도는 탈삽하여 출하하고, 중하품 60~70%는 곶감 등으로 가공하여 출하하고 있다. 하지만 탈삽시 무름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대부분 익기 전에 푸를 때 수확하여 탈삽하고 있다.

다. 선별, 상품화

베트남 수출용 생감의 수출가격은 50원(元)/13kg 정도이며, 포장작업 과정에서 알코올과 카엑스를 살포하여 유통기간 동한 탈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에틸렌 흡습제(과망간산가리)를 투여하여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다.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에 담가(탄화) 탈삽시킨 감은 비진공으로 포장할 경우 저장기간이 15일 정도로 짧기 때문에 탈삽 후 진공포장을 하여 1개월간 저장이 가능하게 조치를 취한다.

라. 가공

곶감용 감의 선별 기준은 생감 150g을 초과하면 대과, 미만이면 소과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과는 소과의 2～3배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에 생산자는 대과 생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선별방법은 자동 선별장이 없기 때문에 육안선별에 의존하고 있다.

품질등급은 무게(150g 기준), 외관(기형과, 병과, 과숙과 선별) 등에 의해 결정되지만 아직 색도, 당도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곶감을 수출하기 위해 농가는 깎아서 약간 밀린 상태의 반제품을 수출업체에 납품하고 수출업체는 수집한 감을 크기별로 선별하고 자연건조장에서 통풍에 의한 건조 후 제품화하여 포장을 한다. 이때 꼭지 없는 것보다 꼭지가 있는 것이 싱싱한 이미지를 주므로 껍질을 남기고 있다.

소수의 대형 가공회사와 다수의 소규모 개인회사에서 감 수매 후 탈삽 및 가공(곶감, 말린감 등) 단계를 거친다. 이때 가공회사는 수매 후 공장에서 소금물, Co_2 등을 사용하여 탈삽시키고, 개인회사의 경우 창고에서 선별 후 밀봉 통포장하며, 밀봉시에 알코올을 분사하여 탈삽시킨다. 알코올을 분사할 경우 수송기간 중(4～5일간) 탈삽이 완료되어 판매가 가능한 상태로 된다.

수출용 감을 선별・포장할 수 있는 선별라인 및 자동화 시설이 없고, 인건비가 저렴한 편이어서 상품화 과정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연구기능 및 자동 탈삽기를 갖춘 패킹하우스(3만5천평)를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조감도 완성 및 부지를 확보한 상황이다.

곶감 생산의 안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현재 수공작업라인을 자동화라인으로 교체하도록 공장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부지확보와 건물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산지유통센터 규모는 하루 70톤, 곶감 45톤 생산 능력을 가진다.

마. 수출 동향[4)]

계림 궁천현에 소재하는 20년 역사의 감 수출회사 GuiLin Yifeng IMP.XEXP. Trading Co. LTD는 홍콩을 거쳐 곶감을 수출하고 있으며 한국까지 곶감이 이동되는 기간은 계림에서 홍콩까지 3일, 홍콩에서 한국까지 7일, 총 10일정도 소요된다.

예전에는 산동성 지역의 감을 주로 수출하였으나 최근에 계림지역으로 곶감 주산지 및 수출지역이 이동되고 있다. 계림시는 생감의 경우 11월 10일 이전까지 상품화를 완료, 저장한 후 발주에 따라 공급하고 있고 곶감은 주로 구정 전까지 공급하고 있다. 수출은 연간 2만톤 규모로 호주, 동남아 지역에 감(생감)을 수출하며, 한국과 일본 등에는 곶감 형태로 수출하고 있다.

탈삽감은 저온저장 후 상온에서 포장을 개봉하면 2일 이내에 연화되어 상품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0～3℃에서 3개월간 보관하고 장기보관 할 경우 영하 25℃에서 보관하거나 ice 감 형태로 보관한다. 저장기간은 상온에서 15일, 저온에서 20～30일 정도이다.

생감 수출 가격(F.O.B 기준)은 중국산 탈삽감이 (U$3.5≒4,200원/10kg)이고 곶감은 1,400$/톤≒168만원(F.O.C)/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약 1,600원/1kg 수준이다. 곶감은 진공포장(4개/Pack)시 포장비용이 소요되어 수출가격이 떫은감 생감 출하가격보다 많이 높은 편이며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한국으로의 곶감 수출은 '98년부터 시작하였고 중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출물량이면 국가 차원에서 수출을 지원하고 연수도 보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바. 소비, 가격, 소득 동향

중국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상승하고 소비 행태가 다양해지면서 과일 및 감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해도 가격은 연도별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가 판매가격은 크기에 따라 1냥, 3냥 등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체로 수

4) 계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廣西省桂林市 繁茂果業 수출회사의 수출 동향 및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임(2009.10)

출 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편이다. 농가수취가격은 1원 20전/500g 정도로 농가에서 수확하고 작업공장에서 탈삽을 하고 있다.

계림시는 감 산업과 관광 산업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타작목보다 소득이 높은 편이며 감 생산농가는 관광농원 및 숙박제공 기능을 병행함으로써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또한 계림시는 단감 주산지의 생산 및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10월 19일부터 이벤트 행사로 감 축제를 개최하고 바이어를 초청하여 홍보하고 있다.

6. 도매시장 거래 동향[5)]

계림시에 소재하는 청과도매시장은 넓이가 개략적으로 초·중등학교 운동장 넓이 정도이다. 도매시장에서의 과일 거래 방식은 주로 차량에 과실을 적재한 상태에서 중소 소매상과 거래협상이 완료되면 경운기류나 리어커에 실어 운반한다. 시장 주변에서 청과물을 작은 콘테이너에 적재하거나 대량으로 방출·진열하여 파는 업자들도 있다.

도매시장에서 판매되고 곶감류는 주로 15kg 단위의 골판지상자에서 낱개로 포장된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 곶감에 분이 있는 상품 혹은 없는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 품질 및 위생상태, 상품 상태 수준은 외관상 낮아보인다. 곶감 판매가격은 20근에 65元으로 원화로 환산할 경우 11,000원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다.

비교적 큰 크기의 감이나 작은 크기의 생감, 연시감도 판매되고 있었다. 대체로 외관상으로 크기나 모양, 색택은 좋은 것으로 보였지만, 포장 재료나 상태 수준은 낮아보인다. 연시감의 개당 가격은 500원 수준이다.

감귤도 수확물을 트럭에 적재하여 시장에 소량 컨테이너 단위로 판매되고 있었다. 외관상 푸른색이 많이 남아 있어서 덜익은 것으로 보이지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다. 착색제를 쓰지 않아 농가에서 바로 수확 및 시장출하된 것으로 보이며, 당도 생각보다 훨씬 높은 11.5～12.5°Bx 측정되어 당도 품질이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연시 당도는 17.7°Bx로 나타났다. 청과도매시장에 사과, 메론, 금지, 키위, 대추 등 다양한 과실들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재래시장의 채소류 판매실태에 있어서 대체로 채소류 종류가 다양하고 신선한 인상을 준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과실과 채소류의 공급 범위가 넓어서 다양하며, 과실류의 경우 색택이나 모양이 우수하지는 않지만 당도는 좋은 편으로 판단된다.

---

5) 중국 과실류 거래시장 동향은 계림 청과도매시장에 대한 200.10.19~10.24일까지의 조사 결과를 주 내용으로 하여 작성함.

7. 홍콩 과실류 수출시장

가. 고급매장 판매실태

□ 단감

홍콩의 대형백화점 판매 매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감은 대부분 도근조생 등 일본산 조생종 감으로서 일본 감 주산지 지자체 주체로 판촉행사를 추진하고 있었다. 판촉행사는 후쿠오카 Sogo백화점과 City Super에서 진행 중이며, 주산지 JA 全農에서 일본 전통의상을 입고 일본 단감 무료시식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판촉행사 내용에 일본산 감의 효능, 시식방법 등을 소개하는 소형 전단지를 일본어로만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었는 일반 현지인 소비자 중심이라기보다는 일본인 교포의 고소득층을 타깃으로 판촉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본산 감의 포장규격은 포장단위당 7.5Kg으로서, L 사이즈의 경우 상자당 36개 들이이며, 개당 무게는 208g이다. 2L 사이즈는 상자당 32개 들이로 개당 무게는 243g이다.

홍콩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일본 감의 판매가격은 도근 조생의 경우 품종, 포장단위, 판매장소에 따라서 약간식 차이가 있었다. 2L 사이즈 2개들이 팩 기준으로 도근조생 품종은 HK$35.0/2개(2L), 서촌흑시는 HK$28.0/2개(2L)이다. 일본산 도근조생의 L사이즈의 개당 가격은 HK$12.0(약 1,83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중국 월시품종의 경우 6개에 HK$10.0(약 1,520원)이다.

< 일본산 단감 판매 규격 >

규 격	4L	3L	2L	L	M	S
갯수(개)	24	28	32	36	40	46
무게(g) (한국감)	313 (-)	268 (-)	243 (250)	208 (238)	188 (200)	163 (178)

< 홍콩 유통매장별 감 판매가격 >

품 종	서촌흑시	도근조생			月柿
수 출 국	일 본	일 본	일 본	일 본	중 국
포장단위	2개/팩(2L)	2개/팩(2L)	2개/팩(L,2L)	낱개(L)	6개/접시(M)
판매가격	HK$28	HK$35	HK$30～58	HK$12	HK$10
(원화)	4,200원	5,250원	8,700원	1,800원	1,5006원
판매장소	Sogo백화점		시티수퍼	완차이 재래시장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 백화점 조사결과(2009.10).
원화단위 환율은 1HK$= 152.65원을 적용함.

□ 사과, 배

홍콩 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양배는 일본산(20세기, 신수), 중국산(풍수, 남수, 황금) 등의 품종이 판매되고 있으며, 크기별 품질차이에 따라 가격차이가 큰 편이었다. 일본산은 조생종이 Sogo 백화점 등 고급매장에서 고가(4,200원)에 판매되고 있었지만 일본산 조생종 판매가 종료되는 단경기 시기인 11월 이후 Sogo 백화점 수퍼마켓 등의 시장 판매는 한국산 배 판매가 우월한 위치 점유 및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 대형판매점(wellcome) 및 APITA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풍수는 각각 600원, 1,050원, 남수는 1,500원으로서 일본산 신수배 가격의 14～36% 수준이으로 중국산 배 가격경쟁력이 높다. 중국산 풍수의 판매가격은 5kg당 약 U$7.0 수준으로(12,600원) 한국산 배 수출가격의 70～80%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산 수출 배의 품질과 품질관리체계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므로 안정적 거래기반을 갖춘다면 수출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홍콩 APITA 백화점에서도 고급과실들이 판매되고 있었는데 일본산 도근조생이 개당 6,000원에 판매되는 고가격에서 4개단위에 5,2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도 있다. 일본산 사과는 2개에 9,000원～2,235원에 판매되고 있다. 밀감은 한국산이 4대릉이 5,850원에, 일본산은 6개들이 6,750원에 판매되고 있다.

Porkn shop에서는 중국산 단감은 판매되고 않고 일본산 단감 등 사과, 배, 귤 등이 판매되고 있었다. 사과는 중국산 후지가 4개 3,000원, 일본산 후지는 4개 5,235원에 판매되고 있어서 중국산은 일본산 가격의 60% 수준에 판매되고 있다. 중국산 황금배는 2개들이 2,250원, 중국 산동성 풍수배는 1개들이 1,935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 홍콩 유통매장별 배 판매가격 >

품 종	풍 수	풍 수	남 수	신 수	남 수
수 출 국	중 국			일 본	
포장단위	15개/5Kg	12개/5Kg	12개/5Kg	2개/팩(L)	2개/팩(L)
판매가격	HK$4/개	HK$7/개	HK$10/개	HK$28/개	-
(원화)	600원	1,050원	1,500원	4,200원	-
판매장소	Wellcome	APITA		Sogo백화점	

< 대형할인점 과실류 판매가격 >

품목	수량	가격(HK$)	가격(원)
pear jade GD	1개	4.5	675
Apple fuji Thai(Haiyang chiang)	1개	4.0	600
풍수리 pear nashi	1개	3.8	570
Apple red	1개	4.0	600
Mandarin ARG	6개	6.6	990
pear royal	1개	3.8	570
Mandarin TW	1개	2.5	375

주: 홍콩 1$ = 150원으로 산정함

< SOGO 백화점 과실류 판매가격 >

품목	수량	가격(홍콩 $)	가격(원)
귤	5개	28	4,200
배	2개	56	8,400
사과	2개	48	7,200

< Porkn shop사과, 배 판매 가격 >

품목	수량	가격(홍콩 $)	가격(원)
용과	1	11.0	1,650
중국산 황금배	2	15.0	2,250
산동성 후지	4	20.0	3,000
일본산 후지	4	34.9	5,235
일본산 홍부사	4	39.9	5,985
일본산 왕검 청사과	4	39.9	5,985
일본산 후지사과	2	45.0	6,750
일본산 단감	4	42.0	6,300
일본산 망고	1	22.0	3,300
산동성 풍수배	2	12.9	1,935
중국산 남수배	2	14.9	2,235
일본산 조생귤	12~13(소과)	19.9	2,985

주) 환율은 홍콩 1달러≒ 150원으로 산정함.

나. 재래시장 판매실태

홍콩 재래시장에서도 비교적 다양한 과실들이 판매되고 있으며, 품질은 크기가 작고 모양이 우수하지는 않은 편이다. 중국간 감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다. 과실 품질(당도)

과실들의 당도를 측정한 결과 배는 11.3~11.8°Bx로서 당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한국산 배의 품질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과의 당도는 13.9°Bx로 한국산 사과 당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탈삽감의 당도는 14.4°Bx로서 높은 편이다. 감귤은 완숙되자 않은 상태에서 9.6~9.7°Bx로서 당도가 높은 편이며, 완숙 밀감은 15.5°Bx로 측정된 상품도 있다.

나. 국내산 과일 평가[6)]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품목은 단감과 딸기 등이며, 단감은 3년, 딸기는 2년 정도 수입경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산 과일류 중에서 가장 유망한 수입 품목은 "딸기"를 꼽았다. 딸기의 수입의 물류체계는 인천공항에서 홍콩으로 비행기를 이용하며, 약 4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ood View Group은 한국을 방문하여 배 수출전문단지 등을 방문하여 품질을 평가하고 홍콩 현지의 Park'n Shop 등 대형소매업체에서 판매촉진 활동을 추진하는 방안 검토 및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수입하고 있다.

홍콩시장에서 한국산 단감은 당도, 색깔 등에서 중국산 단감과 차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중국산과 구분하여 한국산 단감을 구매하고 있다. 홍콩 소비자들이 단감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단감을 중국산과 구분하지 못하여 낮은 가격의 중국산 단감을 구매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내용이다.

홍콩 소비자들은 단감이 사과처럼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맛 및 식미감을 가지고 있

6) 홍콩에서 활동하고 있는 과일류 수입회사인 Good View Group의 General Manager Ricky Lee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임.

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다. 현재 홍콩 백화점 등 고급 시장에 출하되는 단감은 대부분 일본산이 차지하고 있지만 일본산은 생산초기 조생종(천추품종)을 수출시장에 출하한 후 공급이 단절되며, 한국산 대비 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한국산 단감 공급이 어려운 틈새시기를 이용하여 수출하는 특징이 있다. 중국산의 경우 일부 떫은감(홍시)이 판매되고 있으나 홍콩 소비자들이 홍시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량이 많지는 않다. 미국산 단감이 홍콩시장 진출을 시도하였지만 기존의 수입업자 계약물량이 중국산, 한국산, 일본산이 계약되어 있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세계 시장은 점점 개방화가 확대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지 수입업체 입장에서 한국산 감귤이 당도가 높지는 않고 연도별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중국산에 비해 당도가 낮지 않고 과피의 색깔이 선명하고 부드러우며, 맛 및 육질감도 부드러워 품질이 종합적으로 중국산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한국산 감귤 등의 수입을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산 단감은 일본산 대비 가격 및 품질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홍콩 수출시장에서 우위적인 위치에 있으며, 중국산은 대부분 떫은감 위주로 공급되기 때문에 단감 공급이 어렵고 한국산 단감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에 매우 유리하고, 수출시장으로 개척 및 확대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된다.[7] 감귤 등 다른 과실들도 중국산 대비 경쟁력이 있고 일본산 과실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수입업체들의 한국산 과실 및 과실 수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시장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면 충분히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8. 요약 및 시사점

□ 생산, 출하

중국 감 생산은 대체로 단지화, 규모화된 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단지의 재배관리 지침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관수 관리, 수확시기 관리 등에 있어서는 품질개선을 위해 개별적인 노력은 농가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과, 관수 관리, 품질향상을 위한 개별적 관리사항의 관리체계는 비체계적이고 농가별로 차이가 있어 개별 농가별로 수확되는 감의 품질 및 가격도 차등화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감은 대부분 떫은감 품종으로 농가단위에서 생산량 중 45%는 가공공장 등으로 생과형태로 출하하고, 55%는 가공 후 곶감으로 출하하고 있다. 농가에서 수확한 감은 주로 창고에서 탈삽 후 반가공 형태로 수출 가공공장에 출하되며, 도매시장에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아직까지 중국 감의 생산 및 출하과정

7) 필자의 종합적인 의견임

의 산지유통 전문화는 약한 것으로 보인다.

단감 생산농가는 육안선별에 의해 크기에 따라 대과와 소과로 구분하고 색도, 당도는 선별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으며, 기형과는 줄무늬(갈라진 것), 비정형과, 병과로 규정하고 있다. 감 및 곶감 크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3배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대과 생산을 위한 적과, 관수관리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가공 및 상품화

감 수출회사에서는 농가에서 생산한 감을 수집하여 탈삽하거나 농가에서 탈삽 및 반건조시킨 가공 제품을 구입하여 보다 세밀한 단계의 곶감 가공, 상품화 작업 단계를 수행한다.

감 탈삽 방법으로는 물처리 탈삽법과 알코올 처리 후 비닐 포장을 사용하여 10~15kg 단위로 포장하여 에틸렌 흡습제, 일몰, 과망산가리를 1Box에 50g을 투여하여 탈삽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탈삽한 감은 선별 후 상품은 생감으로 수출하고 하품은 곶감으로 만들어 수출한다.

현재 산지유통센터 및 가공처리 공장 여건이 열악하지만, 조만간 한국의 APC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중국 최대의 수출 감 가공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며, 중국 재배관련 연구 및 유통연구소 기술지원을 수행할 것이다.

중국의 감 산업 육성을 위해서 대규모 정부지원이 시작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 산지유통시설 보급이 비교적 이루어진 편이나 아직도 감 산지에서는 가공공장 및 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이다. 국내 감 산지에 규모화되고 전문화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산지유통시설의 주산지별 건립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 수출시장 경쟁력

중국에는 단감 생산량이 적고 떫은감 생산비중이 높기 때문에 떫은감을 탈삽시켜 생감으로 수출하거나 비중이 적으며, 대부분 떫은감을 곶감 상품으로 수출하고 있다. 떫은감을 탈삽시킨 감은 경도를 유지하기 위해 완숙되지 않은 상태의 과피가 푸를 때 수확하여 탈삽시키기 때문에 당도가 낮은 편이며, 냉장보관 후 상온 유통기간이 2일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장거리 운송이 어렵다. 때문에 가격경쟁력은 있는 편이지만, 저장력 및 품질경쟁력은 낮은 편이다. 또한 저장력이 짧기 때문에 상온에서 운송 가능한 홍콩, 태국 시장으로의 유통 및 판매는 가능하지만, 1주일 이상 냉장 수송기간이 소요되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시장까지의 진출은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에 중국에서 감 생산단지를 집단화, 규모화 하고 있으며, 자동 탈삽기

및 진공포장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등 생산, 수확 후 관리기술 등의 문제점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으로 인해 생산 및 수확후 관리기술은 3~4년 이내 해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산 단감이 맛 및 품질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향후 중국산 감의 품질 개선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한국산 단감의 인지도 제고 및 홍보 전략에 있어서 떫은감 대비 단감 맛과 품질 차별화 속성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성을 높일 것이다.

한국산 부유 계통의 단감 품종은 기후, 토지 여건 상 중국 광서성 지역에서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 단감이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고, 중국산 감 대비 산업 전망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산 감과 경쟁해야 할 국내산 감은 떫은감과 곶감 종류이다. 아직까지 한국의 떫은감과 곶감의 상품성이 우수해 품질경쟁력이 있지만, 향후 중국산 감 생산 및 재배, 상품화 과정에서 품질과 안전성 관리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한국산 경쟁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겠다.

□ 과일시장 진출여건

중국산 생감은 홍콩시장 진출이 저조하고, 품질 특성상 장기간 수출시장에서 유통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산 생감처럼 생감으로 판매되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중국산 감의 판매형태는 일부 탈삽감이나, 홍시 상품, 곶감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중국산 감의 가격 경쟁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시장에서 일본산 감귤은 외관 및 당도 등 품질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가에 판매되고 있으며 한국산은 일본산에 비해 품질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한국산 과일류가 품질면에서 우수하게 평가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홍콩 및 동남아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단감산업 경쟁력

한국의 단감 생산기술과 전문성은 중국 감 생산보다 우수하지만 감 재배단지를 규모화, 전문화시킴으로써 재배기술을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때문에 한국 생산자조직은 일본과의 생산기술교류를 꾸준히 수행하고 한국 지역과 토양에 맞는 생산기술은 꾸준히 개발, 보급해야 한다.

한국의 단감 산지유통센터와 시설은 비교적 갖추어져서 시설경쟁력은 있으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시설, 소득장치, 장갑, 두건 미착용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문성 확보 등은 미흡한 상황이다.

□ 시사점

한국산 단감은 기본적으로 중국산 감의 물렁감과 품질 속성이 다르고 현재 가격경쟁력은 낮지만, 품질 수준이 높고 수출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아 수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중국에서 생산, 가공, 출하되는 대부분의 감이 떫은감과 곶감 종류이기 때문에 한국산 떫은감 및 곶감 산업에 대해서는 대단히 위협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이 현재는 생산기술, 가공기술, 안전성 관리 기술이 한국산에 비해 뒤지는 것으로 판단되나 가격경쟁력이 높고 향후 기술수준도 빠르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계림지역 감 생산농가는 자연친화형 농사를 지으며, 관광농업을 위한 숙박시설 준비와 문화콘텐츠로 융복합 산업을 병행하고 있어 과수 생산 농가소득에 관광소득을 합하여 이 지역 단감농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국 과수산업에 있어서도 지역별 과수 생산의 역사와 문화, 스토리텔링, 관광농원 등의 융복합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감 생산은 과원의 토질이 우수하고 규모화 되어 있지만 재배기술과 수확, 상품화, 가공기술은 낮은 수준이고, 과원의 토질 및 기후 특성상 단감생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의 공동관리 기반은 중국이 앞서고 있지만 유통시설(저온저장고) 기반 및 경쟁력은 한국이 매우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감 생산농가는 생산 후 주산지의 수출업체나 가공공장 중심으로 대부분 출하하여 수출물향 확보 기반과 체계는 중국이 유리하지만 생산 경험과 정보는 한국농가가 더 많고 도매시장/상인/저장/가공/인터넷판매 등 출하처가 다양해 출하처 선택의 기회도 한국이 다양해 일관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중국 정부의 가공공장 설립 지원 등으로 품질·안전성·상품성 관리체계에 있어서 한국 및 선진국 수준에 빠르게 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산 떫은감의 품질균일화, 안전성 제고, 출하처 일원화와 품질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투여해야 한다.

한국 단감 산업은 중국산에 의한 파급영향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적어 보인다. 하지만, 한국산 떫은감 및 곶감산업은 향후 중국산의 영향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산지유통조직의 조직화와 전문화된 대응으로 생산관리 체계화, 원산지 표시 등 유통과정의 차별화 등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야 한다.